

SELECTED SERMONS

by

Dr. Samuel C. Gipp, Th.D.

사무엘 킵의 설교

1. 성경을 읽는 방법

Dr. Samuel C. Gipp 지음

조종권 옮김

KJ 도서 출판 **킹제임스**
King James Bible Publications

사무엘 김의 설교

1. 성경을 읽는 방법

지 은 이 | Dr. Samuel C. Gipp, Th. D.

옮긴이 | 조충권

펴낸이 | 김영균

초판발행 | 2017. 06. 02.

발행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지하1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ib.com

편집디자인 | 장한디엔피

ISBN | 978-89-89741-88-6

정가 1,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이 책은 사무엘킵 설교집 1권에 담긴 설교 내용 중
첫 번째 내용만 담은 책입니다.
앞으로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헌 사

이 책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설교자들에게 바칩니다.

슬프게도 이 세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절실하게 필요한 소명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다 읽고 나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머 리 말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전한 설교들을 책으로 내달라는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이 책은 그 요청에 답하는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이 책의 메시지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 테이프 목록에서 선별된 것들로, 말을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28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집회를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수록된 메시지들은 각각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설교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설교 내용에 있어서 본원적인 것은 동일하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고하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Bible Believer)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인용된 내용은 모두 유일한 성경인 킹 제임스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여기에 인용된 내용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르다면, 제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이 여러분들께 우리의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

여기에 인쇄된 메세지들은 테이프로 녹음된 말을 직접 글로 옮긴 것입니다. 말을 글로 옮길 때 설교 내용을 편집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설교를 녹음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복음주의자로서, 30년 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각각의 설교가 언제 어디에서 한 것인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 시기나 장소와는 무관하게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저의 설교를 글로 그대로 옮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언어 외에 소리의 크기나 몸짓과 표정 등이 함께 어우러

저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어 외의 다른 표현(비언어적)들도 언어로 바꾸어 표현하였습니다.

셋째, 많은 집회에서 많은 설교를 했지만 그 근원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다 보니, 설교들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것들은 빼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자들이 설교 중에 무의미하게 사용하는 표현(아!, 여러분! 등)들은 가능한 줄였습니다. 제가 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편집을 하면서 의미 없는 이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사실에 저도 놀랐습니다.

각각 설교의 개요는 책 뒷부분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개요는 길 안내도와 같습니다. 자기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정확히 도달하려면 목적지 설정을 정확히 하고 그에 알맞은 길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알맞은 길 안내를 받지 않고 길을 떠나면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요를 첨부하오니 개요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책에 들어있는 메시지들이 예수그리스도를 위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1. 성경을 읽는 방법

디모데전서 4:13

성경을 펴서 디모데전서 4장을 찾읍시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성경이 좋은 책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끌려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끌려 다녔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바울은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개를 숙이고 이 책의 기록자이신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기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즉시 오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께서 다시 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버린 사람들조차 주께서 오시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없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 만족이 없음을 곧 깨달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으로 만족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이 책(성경)으로 인하여 만족을 찾을 수 있

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께서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책과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여기에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목사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 많은 목사들이 대중에게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초교파교회(연합교회)로 갈 거요. 교리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지 마시오. 교리는 분열만 가져오는 거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리는 분열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몇 분이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손을 들어 보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나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리에 손을 든 것은 이 건물 밖에 있는 95%의 사람들과 갈라섰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을 든 분들 중에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은 것이며,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고 지옥에 갈 수가 없으며, 확실하게 하늘에 갈 운명이라는 것을 믿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손을 들어 보세요. 좋습니다. 또 나쁜 소

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교리입니다. 조금 전에 밖의 사람들과 구분된 5% 중에서, 5% 만이 다시 구분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교리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자신이 교리에 유익함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

제가 지금 교리에 대해 설교하려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는 교리에 관하여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권면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권면’이 무엇입니까? 권면은 제가 지금 이 설교단에서 여러분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의를 행하도록 격려를 받고 훈계를 받는 것이 권면을 받는 일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한 여대생이 자기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여대생 친구를 데려와서 저에게 이렇게 요청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켄트 주립대학교에 다니는데, 일요일에 교회를 가지 않고 켄트 주립대학교 성경 공부 동아리에만 나갑니다. 제 친구한테 일요일에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래, 내가 설명 해 주지”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켄트 주립대같이 일요일에 교회를 가지 않고 동아리를 통해서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쁜 일이지. 나는 각 대학에 있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아리들에 대하여 좋게 생각한단다. 그러나 성경 공부 동아리에서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양심에 찔리는) 내용은 전혀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단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경 공부 모임에 가면 끝이 꼭 빠졌다 나온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의자에 깊숙이 앉아 매우 감상적으로 “그래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친구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오~ 정말 그래, 내 성경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 너와 같이 공유하고 싶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친구는 “나도 방금 그런 축복을 받았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 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감정에 젖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좋아, 좋아, 다~ 좋아.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에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너는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불평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수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어휴~ 목사님, 저에게 더 이상 무얼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목사님은 “이것을 하시오!”라고 또 말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을 에어로빅 설법이 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맥박은 분당 120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돌아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최소한 2년 이상 교회에 다니고 난 뒤, 목사가 당신을 미치게 만들지 않았다면, 당신의 맥박을 체크해 보십시오. 만약 이상이 없다면, 목사의 맥박을 체크해 보세요. 둘 중의 하나는 아마도 죽었을 테니까요.

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 왔을 때, 설교자가 성경책을 펴고 당신에게 바르게 행하고 옳지 않은 일을 중단하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권면에 대해 설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올 때까지 읽는 것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진리는 단순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전하는 내용은 간단하지만, 이것을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한다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I. 지속적으로야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지속성**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매일 음식을 먹지요? 여러분은 매일 음식을 먹듯이 매일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레스토랑에 있습니다. 교회는 레스토랑입니다. 목사는 요리를 아주 잘하는 요리사입니다. 일요일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풍부하게 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른 날도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까지 목사가 숟가락을 들고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여 먹일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음식을 먹는 것은 여러분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일 **성경책을 펴고 읽으십시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데 아마도 핑계가 있을 겁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책을 펼치면 잠이 옵니다.” 등등... 지금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 핑계를 대고 싶을 때마다, ‘성경 읽기’를 ‘식사’로 대체해 보십시오. “아~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려고만 하면 잠이 옵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할 때 잠이 옵니까? “저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은 식사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내일 일터로 갔을 때 누군가로부터 “아이구, 저 친구는 일이 너무 바빠서 굶어 죽게 생겼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듣는다면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겠습니까? 바빠서 식사를 며칠씩 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페인트를 칠하는 어느 작업반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콥’이라는 나이 많은 사람과 함께 일했습니다. 콥은 잠에 관한 한 챔피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칠하면서 자는 것을 봤습니다. 대문간에서 자는 것도 봤습니다. 큰 붓을 손에 쥐고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콥은 벽에 등을 기대고 음식을 몇 입 넣고 우물우물 씹으면서도 잠을 자곤 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그는 곧 다시 음식을 섭취하였고 자기 일을 마무리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어났다면 바로 다시 읽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게 한 밤중이라면 다시 잠자리에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읽으십시오.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음식도 매일 먹지 않나요?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할 일을 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순서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분 안으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책을 읽는 순서를 정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하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렵고 막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영적인 사막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숨 막히게 아름다운 장소를 여행

하는데 중간 중간 사막을 지나야만 한다면 그 사막은 지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사막에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다면 더더욱 사막을 지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이사야서 28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성경을 읽다가 어느 부분이 사막같이 느껴지신다면 주께서는 디모데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민수기를 통하여, 사무엘상을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다시 사막을 지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풀이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언제 끝이 나나요?”라고 묻고 싶으시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휴거’와 ‘죽음’입니다. 그럴듯한 설이 많이 있지만 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죽음’만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의 맥박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맥박이 뛰고 있다면 반드시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야만 합니다.

Ⅱ.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데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표준적인 미국식 성경공부 방법은 이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네 명의 목수는 누구입니까? 오, 그런데요 주님, 저는 지금 세밀하게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답을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정에 맞추지 않으십니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분이 뛰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답을 빨리 주실 수 없나요?” 하지만 그렇게 하여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다음 주 또는 내년에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한 번 읽고 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답을 얻기 위해 적어도 성경을 다섯 번은 읽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보고 성경을 다섯 번이나 읽으라고요? 좋아요, 성경 해설서를 구해서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답을 구하겠습니다. 아니면 참고 서적들을 보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다섯 번이나 읽으라고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진짜 이런 방법으로 기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답을 서둘러 얻으려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공부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제게 와서 “김 형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라

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제 대답을 받아쓰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구절을 모르겠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두 번째로 제가 하는 일은 **그 질문을 즉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요? 질문을 잊어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질문을 잊어버리면 그 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말을 하지요.

저는 그들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잊으신다고 말하지 않았습시다. 제가 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 저에게 답을 주실 거라 믿습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라고 물으면 저는 “**그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답합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기가 조금씩 자라면서 기다가 보행보조도구를 이용하여 걷다가 도구 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자전거도 세 발 자전거를 타다가 보조바퀴가 달린 두 발 자전거를 타고 나중에 보조바퀴가 없는 두

발 자전거를 타고, 성인이 되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두 발 자전거를 타는 8살 어린 아이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는 사람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8살에서 16살(미국에서 자동차 면허증을 딸 수 있는 나이)까지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 아이는 8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영적으로 걸음마하는 사람, 세 바퀴 자전거를 타는 사람, 두 발 자전거를 막 타기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차 열쇠를 달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차를 운전할 수 있을 때 차의 키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인내심을 갖으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 그 뜻을 알게 될 때까지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꾸준히 음식을 섭취하였기에 성장하였듯이 꾸준히 성경을 읽는다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며, 원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 성경을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읽으며 한눈을 팔기도 한다면 영적인 방해받을 수 있으니 꾸준히 집중하여 인내심을 갖고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되풀이하여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당신이 눈으로 본 성경 말씀이 당신 마음으로 들어가 당신 안에 변화 일으킬 것입니다.

Ⅲ. 능동적인 자세로 읽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분에 대해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이 그 분의 말씀이며 진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을 읽는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성경을 10쪽을 읽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10쪽씩이나 읽으라고요?”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앞서 제가 한 질문들에 모두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라면 못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조지 뮐러를 아시지요? 그는 기도를 전부 응답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조지 뮐러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기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아원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음식 재료가 없을 때에도 아이들과 식탁에 앉아 식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음식을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아무도 없었지만 밀가루 한 자루와 감자 한 박스, 우유가 있곤 했습니다. 그는 이런 식의 기도 응답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지 뮐러가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200번 이상 읽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조지 뮐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경을 많이 읽었기에 자신이 대화하는 그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 지도자로 있을 때 한 소녀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니?” 저는 저를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네.” “너는 성경을 좋아하니?” “네.” “그렇다면 지난 일주일 간 얼마나 읽었니?” “한 쪽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 쪽? 한 쪽이라고? 생각해 보라. 성경책은 1353쪽이란다. 매일 한 쪽씩 쉬지 않고 읽어도, 4년에 겨우 한 번 밖에 읽지 못한다. 네가 좋아하는 것을 4년에 한 번 밖에 하지 않는다고? 진짜 좋아하는 게 맞니?”

여러분들 중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루이스 라모, 톰 클렌시 등의 책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 외의 책을 50 ~ 60쪽씩 쉬지 않고 읽어 본 적이 있으시죠? 이런 책들도 손에서 놓지 않고 재미있게 읽으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왜 10쪽을 읽지 못하십니까?

성경을 능동적으로 읽으십시오. 하루에 10쪽씩 읽기로 정하시고 그것을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는 것조차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루에 10쪽을 읽으면 일 년에 세 번 반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30쪽을 읽으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 30쪽씩 읽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일 주일 만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10쪽씩 읽으십시오. “어떻게 읽지요?”라고 묻지 마십시오. 성경 읽는 것이 끝나기 전에 다른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IV. 확신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에 지속성 있고, 인내심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다음에 가져야 할 태도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신하라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으시겠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한 모든 답변이 여러분의 무릎 위에 있는 성경에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의문들에 진실된 답을 해 줄 수 있는 책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리학은 **그 자체가 질병을 고안해 내고,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심리학이 여러분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변명거리를 제공해 줄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심리학은 “당신의 과거의 어떤 일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 난 과거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죄를 짓게 된 거야.”라고 스스로 변명하며 나머지 인생을 계속 죄를 지으며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에게 무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이다. 너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선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나서, 문제 있는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변화

된 삶을 사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이 책(성경)은 너무 두껍습니다. 어느 말씀 어느 장 어느 절을 보면 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라고 묻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는 저, 사무엘 김의 답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담겨 있다는 백과사전의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시지요? 아마도 그것을 쌓아 올린다면 4m는 족히 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성경책을 기록하실 때, 여러분이 충분히 다 읽으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과사전 속의 지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쓸모없는 것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기도 하지만, 성경책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만큼 중요한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답변을 하나님께서 성경책의 첫 장과 끝 장 사이에 모두 담아 두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하십시오.

V. 순종하십시오.

이번에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속 시원한 답을 얻었다는 기분이 들 때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책의 어느 장과 절에서 찾아냈을 때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찾아내기 참으로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두 명이 싸울 자세를 취하고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어.” “그래? 나도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어. 그 오른쪽 옆에 있는 구절을 읽어봐. 그게 너야!” “그러는 너야말로 그 옆의 구절을 볼래? 그건 너야!” 이러면서 성경의 구절들을 돌맹이처럼 서로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때, 목사에게 필요한 것을 보지 말고, 남편에게 필요한 것을 보지 말고, 부인에게 필요한 것을 보지 말고, 아빠에게 필요한 것을 보지 말고, 엄마에게 필요한 것을 보지 말고, 친구에게 필요한 것을 보지 말고, 교회의 형제, 자매,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지 마십시오. 성경이 다른 사람에게 무어라 말하든 그것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보십시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 바르게 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관련된 책을 주거나 관련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변할 것을 지나치게 기대하고, 그들이 변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들을 영적으로 파문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책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말하도록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르게 하도록 하십시오. 성경은 성질대로 하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 도시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질을 자

랑하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칠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울 때에 눈물을 마르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좋을 때 우리를 울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나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
러분께 무어라 하시는지 알 수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무언가 말
씀하려 하신다면, 더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몇 년이 걸려도 좋습
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다보면 여러분은 여러분께 필요한 성경
말씀을 찾게 될 것이고 그것에 순종하면 바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Ⅵ. 변명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여
러분이 “저는 성경을 10쪽이나 읽을 시간이 없어요.”라고 변명하
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TV를 켜지 마시고, 신문을 읽거나 컴퓨터,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다른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
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전에, 학생들을 상대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
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군사입니까? “그럼요. 저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
님의 군사라면 여러분은 항상 몸에 폭탄(TNT)을 지녀야 합니다.
만약에 몸에 폭탄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주님의

군사가 아닙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폭탄이 무엇입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폭탄(INT)의 첫 자(T)는 전단지(tract:종교에 관련된 소책자)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자(NT)는 신약(the New Testament)의 약자입니다.”

그저 집 앞 슈퍼마켓에 생수 한 병을 사러 갈 때도 전단지와 신약성경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몸에 항상 지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교통이 막혀서 이동하지 못할 때도, 누군가를 기다릴 때도, 일이 예정보다 빨리 끝났을 때도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목을 특별히 치료해야 했습니다. 8시간이나 걸리는 치료였습니다. 8시간이나 의사 진료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들고 의사 진료실에 가서 거기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주 많은 페이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저의 사무실에 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성경을 읽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여러 가지를 들어 보았으나 이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 보지 못한 이유를 댄 것이었습니다. 그는 “목사님, 목사님은 아마 믿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글을 못 읽습니다. 겨우 저의 이름을 쓸 정도입니다. 길을 가다가 교통신호 표시 정도는 알 수 있지

만 다른 글씨는 읽을 수 없습니다.” 앞서 제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두 가지 이유에 대해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죽었거나 휴거가 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합당한 이유가 될까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성경을 읽지 못할 수 밖에 없었겠군요. 하지만 우리 나라의 모든 일반 고등학교에는 야간에 영어 교정반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가서 글자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는 게 어떻습니까?” 그는 저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7, 8개월이 지나서 복음 전도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복음전도사가 일어나서 다른 많은 회합에서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서 하시는 일에 관해 간증을 하였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서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이어가던 중 어떤 사람이 일어서서 “먼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성경 구절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돌려 그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몇 달 전 저에게 글을 몰라 성경을 읽을 수 없다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모임이 끝나고 그에게 가서 “아니, 어떻게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영어 교정반 6개월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조금은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성경을 읽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카세트 테이프를 샀습

니다. 그것을 틀어놓고 소리를 들으며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신약이 익숙해지자 구약 성경 카세트도 구매하여 같은 방법으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집에 갔습니다. 그는 이웃집에 가서 “전기톱을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웃 사람이 “아, 오늘 전기톱을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치킨수프를 만들고 있어서요.”라고 하자 그 사람이 “치킨 수프라고요? 아니 치킨수프를 만드는데 전기톱이 왜 필요하지요?” 그 이웃사람은 매우 심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요 나는 전기톱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기톱을 빌려주기 싫을 때는 어떤 이유든 말이 되는 것이지요.” 전기톱을 빌리려 했던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 어떤 핑계를 대든 그것은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침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 우 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 우 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 우 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침송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야훼'와 '야호'커백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균	64	-
71	성경과 지질학	Gaines R. Johnson	304	10000
7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3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4	욥기 연구	Dr Ken Blue	376	13000
75	로마서강해	김 영 균	368	13000
76	영어성경의 감추어진 역사	Gail Riplinger	128	6000
77	성경은 음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James W. Knox	88	3000
78	깨어진 것들	M,R, DeHaan, M,D.	120	5000
79	욥기	Dr, Samuel C, Gipp	48	1000
80	사무엘 김의 설교 - 1. 성경을 읽는 방법	Dr, Samuel C, Gipp	32	1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31종과 소책자 43종 등 74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 5000원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 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 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

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롬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2:9)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군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 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 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 드립니다.



지은이

Dr. Samuel C. Gipp

사무엘 C. 킵 박사는 목사, 복음전도자, 성경 교사,
그리고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한 저자이며 강연회 강사입니다.

그는 많은 양의 정보를 단순한 형 태로 정리하여 제시하는데
남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그의 강력하면서도 유머가 넘치는 설교 스타일로 인해

많은 교회에서 부흥회와 성경강연회 연사로 그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킵 형제는 킵제임스성경의 옹호자로 유명하며 TV프로그램을 통해
킵제임스성경을 공격하는 학자들과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는 지금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www.samgipp.com

www.daystarpublishing.com

옮긴이

조중권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진리침례교회 성도